

안동 능곡회 35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식



권오성 제36대 신임 능곡회장

서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내빈은 권계동 재안파총회장친목회 회장, 권숙동 안동중친회 회장, 권기호 파총회 장협의회 회장, 권오의 대총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수 별장공파총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총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총회장, 권영준 전 국립 안동대 교수, 권기창 국립 안동대 교수, 권영길 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권수환 능우회 회장, 안윤호 안동시체육회장,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 능곡회 부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KBS아침마당 꿈의 도전에 3년간 3회에 걸쳐서 우승을 차지한 권도훈군(초등국교 5년)이 출연, 멋진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용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권기형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기형 회장은 나이 제한으로 능곡회에서 능우회로 넘어가는 권영대, 권영호, 권순탁 등 3명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아울러 능곡회에 많은 도움을 준 권용철 사무국장 과 권영석 재무국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35대 권기형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아쉬

움이 많았지만 이 아쉬움을 36대 권오성 신임회장을 위해 많이 도와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임사가 끝나자 능곡회원인 권승 가수는 무대 앞으로 나와 ‘월영교’, ‘옹이’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등 세 곡의 노래를 연달아 열창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노래가 끝나자 권기형 회장은 권오성 신임회장에게 능곡회기를 인수인계 했다. 곧 이어 36대 권오성 회장은 취임사에서 “능곡회를 위하여 회기동안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임회하는 신임회원 14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취임사가 끝나자 권오성 회장은 지난 1년간 능곡회를 이끌어 오면서 힘을 쏟은 권기형 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수여했다. 권숙동 안동중친회장은 격려사에서 “능곡회는 안동권씨 안동중친회의 희망이며 보배이고 자랑이며 내일의 주인”이라고 강조한 후 “앞으로 안동중친회 행사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구름처럼 모이고 뿔뿔뿔 찢어지고 단결해서 강력한 하나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권수환 능우회장은 격려사에서 “권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회장은 권민재(주)한남

대표(이사), 권순규(김형동 국회의원실 비서관), 권용덕(강릉교동잠봉 대표), 권용목(대성청정에너지(주) 대리), 권택건(VIP모터스 대표), 권상훈(힐링하우스 휴(休) 대표), 권규안(안동농협(달레르망 안동점) 대표), 권혁준(주)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권대관(장춘비계 대표), 권우민(주)에스원 대리), 권우성(자영업), 권용수(통통삼겹 대표), 권우석(대현수도사 공무부장), 권순규(안동병원 팀원) 등 대거 14명을 정회원으로 임회시키고 능곡회원증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단체기념촬영을 했다. 현재 능곡회원은 총 120명이다.

이어 능곡회를 이끌어 갈 제36대 회장단 임원들을 소개하고 나서 기념촬영을, 또 능곡회원과 능우회원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권오성(35세, 부정공파) 신임회장은 안동영문고와 가톨릭상지대학교를 각각 졸업하고 현재 자영업하고 있으며 부인 윤정민 여사 사이에 2남 1여를 두고 있다.

이날 권해욱 대총회 회장과 권숙동 안동중친회장이 각각 난화분을 보내왔으며 각각각층에서 60여명이 대형 화환을 보내 오기도 했다.

2부 행사는 만찬으로 뷔페로 저녁식사를 했으며 권오성 신임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대형 샤워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세목 신임 북야공파총회장



권세목(權世穆, 1937년, 37세) 전 경상북도 의원이 신임 북야공파총회장에 취임했다.

운서(雲瑞) 권기호(權奇浩) 전 북야공파총회장은 지난 2년간 안동권씨 종보에 “작은 약속도 어기면 큰 화(禍)를 부른다”(2020년 11월 1일자)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고 코로나19라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2년 주기로 발행하는 북야공파총회지 제6호를 발간하는 등 승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파친간(派親間)에 화목과 족의(族誼)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해 왔다.

신임 권세목 회장은 의성중친회장과 의성향교 전교를 역임했으며 현재 문소관광(주) 대표를 맡고 있다.

7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 <임원선임>**
권용만 중보편집위원(21.08.01자)
미디어 정신건강연구소장
- 부 회장**
권오수(한국가스기술인협회장) 1,000,000
- 이사**
권민호(산청) 300,000
권혁구(음성) 300,000
권혁철(음성) 300,000
권창규(원주) 300,000
- <찬조금>**
권오환 회장(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100,000

총 : 2,3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실천, 사회적거리두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안동권씨 종보’ 기증자를 찾습니다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안동권씨종보가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매월 안동권씨종보 2부씩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종보를 검토해본 결과 1993년 1월호 이전 종보 등이 미보관 상태로 파악되어 고 권오선 고문이 소장하고 있던 종보를 지난 3월 10일 인수하여 5월 11일 창간호(1974.12)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총 495권을 납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본과정에서 누락 된 종보가 아래와 같이 발견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해당 종보의 소장자를 찾고 있으니 소장하고 계시는 족친께서는 대중회로 연락하시고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수	부수	면수	발행일자	비고
165	1	4	1989.3.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 02585

안동권씨 대중회